



# “장사리상륙작전과 학도병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25일 개봉... 배우 김명민

“전쟁 영화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 아닐까요.”

오는 25일 개봉하는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에 출연한 배우 김명민(47)은 이 영화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했다.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은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인천상륙작전의 양동작전으로 진행된 장사리상륙작전을 다뤘다. 김명민은 이 작전에 참여한 어린 학도병들을 이끄는 이명준 대위를 연기했다. 실제 작전을 이끌었던 이명준 대위가 모델인 인물이다.

최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김명민은 “(장사리상륙작전에 대해) 알려야 할 이유가 있어서 영화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 당시 무모한 작전으로 희생된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가슴 아픈 역사가 어떻게 묻힐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많

은 분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 하고 후손들에게 이 작전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것도 우리 세대의 책임이 아닐까 합니다.”

김명민은 “장사리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잡전 용사나 유족들은 이에 대해 정말 알고 싶어서 영화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기뻐한다”고 말했다.

작전에 참여한 772명 중 대부분은 평균 나이 17세의 어린 소년들이었다. 김명민은 영화가 이 학도병들의 이야기임을 분명히 했다.

“어린 민초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야기이고, 이른바 '국뿔'(국가에 대한 자긍심에 과도하게 도취해 있는 상태)이나 반공 요소는 없죠. 모든 스테프가 학도병들의 얼굴과 감정 중심으로 잡아내려고 했어요. 주요 배우들뿐만 아니라 보조출연자 얼굴에 집중했죠. 그

## '국뿔'이나 반공 요소 없어 17세 학도병들의 이야기 수조 세트 촬영 땀 배우들 저체온증까지 걸려

### ‘국뿔’이나 반공 요소 없어 17세 학도병들의 이야기

“수조 촬영 때는 저와 일동 상사 류태석 역의 김인권 씨, 스티븐 배우들까지 저체온증에 걸렸어요. 몸을 못 움직이고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이 밖에도 부상 등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민호(최민호)는 눈 근처에 파편이 튀어서 위험했고 실제로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영화의 흥행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며 “나도 아파이고, 내가 자랄 때 누군가가 날 위해 해주듯 다음 세대를 위해 해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명준 대위와 시대를 초월해 공감하려고 해봤어요. 아이들(학도병들)을 보면 올라오는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했죠. 리더는 이성적이어야 할 것 같았어요. 772명을 복귀선에 태워야겠다

는 의지를 가진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생각했죠. 실제로 이명준 대위도 리더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했던 것이고요.”

그는 “학도병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에서는 뱃기죽이 찢어질 정도로 호흡하면서 대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장면은 수조 세트에서 촬영된 까닭에 여러 가지 고충도 있었다. “수조 촬영 때는 저와 일동 상사 류태석 역의 김인권 씨, 스티븐 배우들까지 저체온증에 걸렸어요. 몸을 못 움직이고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이 밖에도 부상 등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민호(최민호)는 눈 근처에 파편이 튀어서 위험했고 실제로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영화의 흥행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며 “나도 아파이고, 내가 자랄 때 누군가가 날 위해 해주듯 다음 세대를 위해 해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책임감을 강조했다.

## ‘배가본드’ 단숨에 10.4%... 3부 쪼개기 편성 ‘눈살’

‘썩니다 천리마 마트’ 3.2%

‘아이슬란드 간 세끼’ 4.6%

250억원 제작비와 화려한 캐스팅으로 하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꼽힌 SBS TV 드라마 ‘배가본드’가 첫 방송부터 10%대 시청률을 기록했다. 2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방송한 ‘배가본드’ 시청률은 6.3%-8.0%-10.4%로 집계됐다.

전날 방송은 차달건(이승기 분)이 비행기에 테러를 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배후를 추격하는 이야기가 숨가쁘게 펼쳐졌다.

모로코의 이국적인 풍경에서 펼쳐지는 차달건과 테러리스트의 일대일 격투와 옥상 추격전, 도로 카체이싱 등 액션 장면은 거의 영화 같은 퀄리티로 눈을 땄 수 없게 만들었다.

문제는 1시간짜리 드라마를 20분씩 총 3개로 쪼갠 편성이었다. 20분마다 삽입되는 광고는 극의 흐름을 끊고 집중력을 떨어뜨려 시청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승기와 배우지, 두 남녀 주인공의 연기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갈렸다. 연기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배우 이미지가 역할에 안 맞거나, 무거운 극의 분위기가



SBS TV 드라마 '배가본드'

에 비해 연기가 가볍게 느껴진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다.

같은 날 방송을 시작한 tvN 불금시리즈 ‘썩니다 천리마마트’는 3.2%(이하 유료가 구)로 집계됐다. 누적 조회수 11억부를 기록한 원작 웹툰을 따라 만화처럼 톡톡 튀는 연출과 배우들의 코믹 연기가 호평을 얻었다. 한편 동시간대 방송한 프로그램 중 tvN ‘삼시세끼 산촌편’은 6.7%를, 방송시간이 단 5분에 불과해 화제를 모은 tvN ‘신서유기 외전:삼시세끼-아이슬란드 간 세끼’ 첫회는 4.6%를 기록했다.

MBC TV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는 2.7%-3.7%, ‘나 혼자 산다’는 7.7%-8.6%, KBS 2TV ‘으라차차 만수료’는 1.8%-2.4%였다. /연합뉴스

## 김현정 CBS 앵커, tvN서 인터뷰 프로그램 진행

### ‘김현정의 센터:뷰’ 10월 방송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자인 김현정(사진) CBS 앵커가 TV로 활동 영역을 넓힌다.

tvN은 최근 PD가 다음 달 방송 예정인 신규 프로그램 ‘김현정의 센터:뷰’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김현정의 센터:뷰’는 김 앵커가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를 찾아가는 이슈 토크쇼다.

난관 뜨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중심을 찾기 위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겠다는 의도다.

김 앵커는 출연 계기에 대해 “TV라는 매체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더 넓게 전달하려는 도전이라면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0월 말 방송 예정.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번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6:00 2019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경기 <콜로라도:LA다저스>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MBC 뉴스투데이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무한리플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55 중계방송 전라남도의회 의정질의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웰컴2라이프(재)	00 SBS 12뉴스 30 제27회 임방울 국악제
1	00 네트워킹기획 문화산책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2 50 중계방송 전라남도의회 의정질의	
2	00 KBS 뉴스 1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재)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열린채널 광주(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50 뽀뽀모 도우미 놀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플 샐러드(재)	20 모두 다 쿵따리	00 월드베스트다큐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썸바이벌 1+1(재)	00 5 MBC 뉴스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우기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자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웰컴2라이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	05 스트레이트	00 리틀 포레스트
11	00 더 라이브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안녕하세요	05 문화콘서트 난장	2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05 스포츠 다이어리 20 낭만클럽	40 나이트 라인

## EBS1

07:00 로보가 폴리	13:00 EBS 다크프라임	18:00 생방송 특이점! 보니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내 마음의 안전기지	19:00 스파이더맨
08:00 당동댕 유치원	14:45 몰랑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띠띠뽀 띠띠뽀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00 TV로 보는 원작동화
08:45 최고다! 호기심박지(재)	15:10 로보가 폴리(재)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09:00 출동! 슈퍼윙스	15:25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15 마샤와 곰	15:55 출동! 슈퍼윙스(재)	21:30 한국기행
09:30 원더볼츠	16:10 최고다! 호기심박지(재)	<골러골러 가다 보면 1부
10:00 지식의 기쁨	16:25 마샤와 곰(재)	멈춘 그곳에 인연>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댕 유치원(재)	21:50 EBS 다크프라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3:35 별일 없이 산다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파 피그(재)	24:25 지식의 기쁨(재)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7:45 띠띠뽀 띠띠뽀(재)	24:55 지식채널e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3일 (음 8월 25일 癸亥)

<p>36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곤란하다. 48년생 근면과 검소 속에서 복이 피어나리라. 60년생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청된다. 72년생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4년생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96년생 잘 간수하지 못한다면 잃고 나서 후회하리라.</p> <p>행운의 숫자 : 30, 22</p>	<p>30년생 순풍에 돛을 다니 순조롭게 그치지 않는다. 42년생 보류했을 때는 무리가 따른다. 54년생 약진의 발판이 되리라. 66년생 흑백을 분명히 가리지 않으면 난처해지겠다. 78년생 생 인식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느니라. 90년생 결정적인 때에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지 않을까 두렵다.</p> <p>행운의 숫자 : 76, 69</p>
<p>37년생 습관이 걸림돌로 작용하여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49년생 본디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니 노심조사할 필요가 없다. 61년생 윤곽이 잡히고 체계가 서게 되리라. 73년생 여러 가지 결과물이 생기겠으나 실속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85년생 원점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97년생 기준에 있어 왔던 것이니 다루기가 용이 하겠다.</p> <p>행운의 숫자 : 63, 35</p>	<p>31년생 임시방편적이라면 무의미하다. 43년생 효험이 있는 약을 얻는 이치이니라. 55년생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67년생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겠다. 79년생 결보기에는 가득 찬 것 같지만 내용은 텅 비어 있다. 91년생 역풍을 안고 있으니 부담스럽겠다.</p> <p>행운의 숫자 : 15, 01</p>
<p>38년생 어려움은 지나갔으니 안심해도 되느니라. 50년생 복합적인 선택이 용이하다. 62년생 애초의 예상대로라면 순기능을 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74년생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기능을 유지하리라. 86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포용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98년생 전후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44, 55</p>	<p>32년생 행방이 묘연하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살펴봐야겠다. 44년생 속단한다면 머지않아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니라. 56년생 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68년생 상대의 속사정은 따로 있다. 80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것이 태반이라서 혼란스럽고 무의미하다. 92년생 해복은 문제점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p> <p>행운의 숫자 : 60, 31</p>
<p>39년생 대안이 없다면 현상 그대로 두는 것이 상책. 51년생 전체를 아우를 줄 아는 성숙함을 보일 때다. 63년생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자. 75년생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면 재물이 들어올 수 있다. 87년생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99년생 주위의 환경에 따른 변수가 크니 대안을 마련하자.</p> <p>행운의 숫자 : 58, 15</p>	<p>33년생 미련을 버렸을 때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45년생 서로가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라. 57년생 당당하게 임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69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 올 수 있다. 81년생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93년생 자기 일에 열중하는 것이 최종의 승자가 되는 길이다.</p> <p>행운의 숫자 : 92, 21</p>
<p>40년생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국을 살펴지 않으면 안 되겠다. 52년생 과감한 결단을 내리자. 64년생 오판을 할 수도 있다. 76년생 불합리함에 대한 척결이 시급하니 마무르 말고 즉시 실행해야만 한다. 88년생 길한 징조가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예의 주시 하셔야 한다. 00년생 침착해 야만 이룰 수 있다.</p> <p>행운의 숫자 : 75, 36</p>	<p>34년생 관건이 될 만한 핵심 가치에 주목하라. 46년생 반복될 뿐이다. 58년생 완벽을 추구하려다가 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70년생 대체로 순조롭다. 82년생 즉시 실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두자. 94년생 준비해 두었던 것을 시의 적절하게 쓰게 된다.</p> <p>행운의 숫자 : 78, 64</p>
<p>41년생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저 소모적인 뿐이다. 53년생 직접 모색하는 것이 제일 낫다. 65년생 대응 관계에 놓이게 된다. 77년생 과거의 양금을 털어버리고 혼연히 대하라. 89년생 확실한 의사 표시와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01년생 여유를 갖고 세밀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p> <p>행운의 숫자 : 37, 49</p>	<p>35년생 사회적 통념으로 판단하면 무난하리라. 47년생 별 문제 없으니 그대로 추진해도 된다. 59년생 어김없이 처리해야 한다. 71년생 엉뚱한 실태라가 풀리겠다. 83년생 부족함이 뚜렷하니 속히 보완토록 하자. 95년생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라.</p> <p>행운의 숫자 : 85, 25</p>